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교회학교 가을심방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사진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유년부 성경학교의 모습이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시간을 쪼개어야 한다. 한달 내내 마음이 조려진다. 교역자님과 부장님의 은근한 압력도 때로 부담스럽다. 그래도 학생들 집에서 학생과 부모님들을 만나면 모든 시름과 무거운 마음이 가신다. 대접받는 음료수 한 잔이 마음을 씻는다.

만나면 먼저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학생의 교회생활과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을 들으면서 꼼꼼히 기록한다. 그리고 심사숙고 하면서 평가서를 기록한다. 힘이 든다. 건강이 따르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진땀을 빼어야 한다.

그래도 9월 한달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하다. 보이지 않던 아이들도 눈에 띄기 시작한다. 선생님을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이 붙는다. 열매가 맺힌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그 집이 떠오른다. 학생의 마음을 가슴으로부터 느끼게 된다. 학생들도 그렇다. 선생님을 집에서 만나보니 마음이 새로워진다. 특별한 느낌이 든다. 어느새 선생님과 아이의 사이가 성큼 가까워진다. 선생님 얼굴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된다. 선생님에게 전보다 말할 것이 많아

지게 되는 것이다.

심방은 귀하다. 이 일을 통해서 기대치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심방을 받는 학생의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추석절 맞아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교회에서는 이번 추석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 특히 불우이웃 수용시설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다. 한편, 이번 사랑의 선물은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과 파출소 직원들, 역삼1동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선물비는 총 1,740만원이다.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구제의 섬김'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뉘길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가 모아져야 하겠다.

사직하신분
청빙되신분

이번 9월 정기당회를 통해서 장로 한 분과 교역자 두 분이 사직하게 되었다. 김재균 장로는 개인사정에 의해, 정광욱 목사와 윤종일 목사는 각각 유학길에 오르게 되면서 사직하였다. 한편, 이



미 대학부 사역을 시작한 한근수 목사는 9월 10일부로 청년교구 지도목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조문찬 목사(사건)가 5교구 지도목사로 청빙되었다. 조

문찬 목사는 1963년생으로 고신대학 기독교교육학과와 총신대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남부산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았다. 조 목사는 그동안 부산의 부전교회, 대청교회, 수영로교회 등에서 사역해 왔다.

사직하신 분이나 청빙되신 분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실히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어야겠다.

주일 5부예배
찬양대원 모집

교회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된 5부예배를 위하여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에 걸맞게 젊은이들이 담당하기를 바랬으나 대학, 청년부의 집회시간에 쫓겨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찬양위원회에서는 찬양대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따라서 찬양대원은 대학부, 청년부 연령층의 사람들로 5부예배에 참여하며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뽑을 계획으로,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은혜로 연주된 '신앙고백'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아 드려진 지난주 찬양예배에서는 아멘찬양대의 '신앙고백'이 연주되었다.

성실한 기도와 연습이 찬양으로 잘 표현되어,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감동을 주었다. 특별히 연주의 제목과 주제가 '신앙고백' 이어서 최근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회복 바른신앙'과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 김성관 목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연주된 '신앙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생활에서 계속적인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하나님의 특별계시

(이사야 6:1-5)

웃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계시(환상)를 보았습니다.

1. 웃시야 왕의 생애와 죽음

(1) 웃시야 왕이 나라를 선택

웃시야 왕은 유다의 제10대 왕으로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의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과 정치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① 중농정책을 폈습니다.

웃시야 왕이 즉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은 농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세력이 없는 농민들을 억울하게 한 장관 이든지 법관은 용서없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관리들이 청렴해지고 약자를 억울하게 할 사람이 없어지고 백성들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농민들이 마음놓고 살게 되자 감사하여 더욱 부지런히 일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년이 들어 3년이 지나기 전에 온 나라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② 국방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무기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③ 왕권을 바로 세웠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안정을 찾게 되자 온 백성들이 어린 웃시야 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당당해졌고 그 명성이 이웃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 웃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성공한 비결

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웃시야 왕은 자기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와는 강하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성공하였습니다.

②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놀기 좋아하는 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약자의 편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웃시야 왕은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웃시야 왕의 마지막에 실패의 죽음으로 끝난 이유

그러나 선정을 베풀던 웃시야 왕이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너무 칭찬을 하고 주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조공을 가져 오니까 세상에 자기처럼 위대한 왕이 없는 줄 알고 교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도가 지나쳐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까지 월권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 흠이 없는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리려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웃시야 왕을 막았으나 오히려 그는 호통을 치며 자기를 막는 제사장들을 밀쳐내고 향불을 피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길이 그에게 나타났고 웃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웃시야 왕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궁궐에서도 쫓겨났고 결국 폐위되었으며 별궁에 죄수처럼 갇혀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2. 특별계시를 주신 목적

이제 웃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목자를 잃은 백성들이 낙심하여 통곡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가 막혀 성전에 들어가 었드렸습니다. 그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타까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본즉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성전에 가득차 있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면 웃시야 왕이 죽었다고 울며 낙심하는 이사야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웃시야 왕이 죽으므로 안타까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참된 임금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던 웃시야 왕은 죽었으나 왕이 앉았던 왕좌보다 더 높은 보좌에서 나라를 지켜 주시는 여호와와는 엄연히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3. 특별계시의 내용

(1)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1절)

①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권위가 가장 높은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살살이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며 누구에게도 도전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②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는 교회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신 보호가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은 숨겨 주고 보호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성전에 나온 자들에게 그 은총을 입혀 주시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은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발견하고 그 결과 자신까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회개할 것은 바르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2) 스랍들을 보았습니다(2-4절)

스랍이란 천사 혹은 불꽃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깨끗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① 스랍들에게는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날아다닙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날아다닙니다.

첫째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불꽃같이 깨끗하고 힘이 있는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얼굴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도 스랍들처럼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날아간다는 것은 즉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천사들은 일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② 스랍들은 서로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첫째,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찬송했습니다(3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스랍들이 부르는 찬송의 위력은 문지방의 더가 요동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또 이들의 찬송으로 인해 집에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연기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3) 망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5절)

홍련왕이 세상을 떠난 것도 문제가 지만 약한 백성의 등가죽을 벗기는 관원들의 행패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놀면서 반역만 꿈꾸게 되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이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지체 중 가장 작으면서 제일 세력이 강하고 무섭고 악독한 것이 혀입니다(약 3:2, 6).

② 자신이 비천하고 무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천사들의 하는 일도 모르고 자신의 더러운 것까지도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③ 자신이 불충성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자신이 충성하는 줄로만 알았으나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천사들은 쉬지 않고 날개를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일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데 자신은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④ 교만하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범한 죄값이 무섭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이 나기도 하여 몸둘 바를 모르다가 그만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발견하고 그 결과 자신까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조금 했다고 내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거나, 성경 몇 줄 배웠다고 내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거나 하면서 교만하여 날뛰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회개할 것은 바르게 회개하고 천사들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THE SILVER TRUMPETS

(Numbers 10:1-10)

Prior to the Israelites' setting out for their thirty-eight years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from Mount Sinai, the Lord told Moses to make two silver trumpets. Directly from God's order, using various sounds, the trumpets were blown for the purpose of "calling the community together and having the camps set out" (vs. 2). These trumpets were very special instruments not only because of their fine silver makings and important functions but moreover because of their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His people.

God specifically designed a special program for the two trumpets. He told Moses, "When both are sounded, the whole community is to assemble before you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s. If only one is sounded, the leaders - the heads of the clans of Israel - are to assemble before you" (vss. 3-4). It became quite important for the Israelite leaders to listen and discern the various trumpet blasts. For those familiar with the sounding of trumpets, it is very difficult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one and two trumpets. So the Israelite leaders really needed to listen carefully - sensitively!

Another aspect of God's trumpet program included different kinds of signals for blasting alarms. "When a trumpet blast is sounded, the tribes camping on the east are to set out. At the sounding of a second blast, the camps on the south are to set out. The blast will be the signal for setting out. To gather the assembly, blow the trumpets, but not with the same signal" (vss. 5-7). Again, the Israelite leaders needed to be very attentive in order to hear the proper trumpet message and respond accordingly.

Of course, because of the special communication associated with the trumpets between God and man, God instructed Moses that, "The sons of Aaron, the priests, are to blow the trumpets. This is to be a lasting ordinance for you and the generations to come" (vs. 8). God's servants were the only ones ordained for this special task. The trumpets were very special, as noted in that they were made of silver, not brass. Silver is a precious metal and it makes for the finest trumpets. The priests were given these silver trumpets because it was their responsibility to lead God's children towards His direction. It was their responsibility to distinguish the distinct trumpet sounds that God ordered.

The trumpets were also to be used in times of war. "When you go into battle in your own land against an enemy who is oppressing you, sound a blast on the trumpets. Then you will be remembered by the Lord your God and rescued from your enemies" (vs. 9). The act of blowing the trumpets in times of war were acts of faith. The Israelites acted and God remembered. When the Israelites put God foremost in their actions, God rescued them.

Lastly, God informed Moses that the trumpets were to be used, "Also at your times of rejoicing - your appointed feasts and New Moon festivals - you are to sound the trumpets over your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and they will be a memorial for you before your God. I am the Lord your God" (vs. 10). These holy convocations were to use the trumpets as a reminder that the Lord was indeed their God.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여호와와 은나팔

(민수기 10:1-10)

이 스라엘 회중이 시내산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삼십 팔 년간의 여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은나팔들은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2절). 이 나팔들은 그것이 은으로 만들어졌고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라는 이유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팔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에게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3-4절).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나팔 소리를 듣고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팔 소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조차 하나와 두 개의 나팔 소리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매우 주의 깊고 예민하게 귀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팔로 신호할 수 있는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5-7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팔 소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특별한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나팔들은 쇠로 만들지 않고 은으로 만든 특별한 기구였습니다. 은은 매우 값진 금속으로서 가장 훌륭한 나팔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은나팔들이 주어졌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분별하여 적절하게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나팔들은 또한 전쟁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9절). 전쟁중 나팔을 부는 행동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댄 앞에 모시고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되, "또 너희 회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10절)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집회에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정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에 임박하였으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there are many references to the sounding of the trumpets. In Joel 2:1, we read, "Blow the trumpet in Zion; sound the alarm on my holy hill. Let all who live in the land tremble, for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It is close at hand." In Leviticus 23:24, we read of the feast of trumpets, "Say to the Israelites: 'On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you are to have a day of rest, a sacred assembly commemorated with trumpet blasts.'" In 1 Corinthians 14:8, Paul states, "Again, if the trumpet does not sound a clear call, who will get ready for battle?" And in Revelation 1:10, John refers to the Lord's voice,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and I heard behind me a loud voice like a trumpet."

As a Christian leader, these verses truly touch my heart. Just as the Israelite leaders needed to concentrate on the trumpet sounds in order to really hear, know and practice God's directions, so too must the Christian leaders of today listen, understand and follow the Holy Spirit's directions. We need to be the trumpets that blast God's directions for His people. As His instruments, we can only function through His blowing, not ours. This means that Christian leaders need to completely rely on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And so too, all Christians need to hear His voice through worship, prayer, meditation and study of His word. All Christians need to completely rely on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and follow His calling for their lives. God speaks to us in many ways that are mysterious to us.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discern His voice by listening intently and obeying and serving Him faithfully.

The silver trumpets served as a communication tool between God and His people. Today, we are His tool in Christ. The Holy Spirit blows God's voice into us. This tremendous blessing of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empowers, enables and equip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erve the Lord as the finest silver trumpets. It is my prayer that Christian leaders, pastors in particular, listen intently to His voice and open themselves completely to his blowing, so that the trumpet sounds are clear and correct. It is also my prayer that all Christians follow and listen to the Holy Spirit's directions and live in His eternal peace.

It's so sad to see professing Christians living life in unhappiness, stress, and turmoil. Their trumpets have become unpolished, dusty and dirty. Their sounds are not clear and are distorted. God's voice cannot blow through the clogged openings. Their weak faith has caused erosion. The solution that will polish them and bring them back to shiny form is faith in Jesus Christ. He is the answer to all problems, no matter what the question is.

In Christ, we are forever joyful and thankful. We possess a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Times of crises are our testing ground for our faith. Is Jesus Christ really your Lord and Savior? If the answer is yes, then there can be no dooming unhappiness, no stress, and no turmoil. Our trust and confidence in Jesus Christ eliminates all these dilemmas. So, if you find yourself unhappy, stressed out, or perceiving reality as turmoil - stop and take a moment or several moments to pray and refocus your perspective on Christ. Don't let Satan and his demons take away God's glory from you. We have real power in Christ to overcome all of the devil's tricks and lies. The devil's powers cannot harm us in Christ. We are completely protected and have no need to fear anything from Satan.

Our responsibility is to keep our trumpets in fine working order so that God's voice carries through clearly and triumphantly! Just as the two silver trumpets called the Israelites together and set them out in an orderly fashion, so we too need to focus, concentrate and intently listen to the wind of His breath blowing into us to call us to Him and send us out to others.

I want to be like those unblemished and lustrous silver trumpets that the priests of old used to direct God's people. I want to have a silvery shine that reflects His light and touches those He calls.

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며 성회에 부는 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은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구절들은 저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진정으로 듣고, 알고, 실행할 수 있기 위하여 나팔 소리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야 했듯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바로 전달하는 나팔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팔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기도, 묵상과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분별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나팔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의사 전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준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훌륭한 나팔들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 중 특별히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께서 험하게 불어 주시며 맑고 정확한 하나님의 나팔들로 쓰여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지시를 바로 듣고 따르면서 주의 영원하신 평안 가운데에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고, 스트레스와 혼란 가운데에 살고 있다면 이는 실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나팔들은 닳아 있지 않아 먼지 묻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확실히 않으며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막힌 나팔들을 통하여 들려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나팔은 연약한 믿음으로 부식되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여 반짝이고 깨끗한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당신을 망하게 하는 불행이나, 스트레스나, 환난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모든 궁지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만일 당신이 불행하며, 지치고, 또는 현실을 곤경이라고 여기는 상태에 처해 있다면, 즉시 멈추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마귀의 꾀계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기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나팔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하여 맑고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은나팔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나팔들로서 바로 쓰임 받기 위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들을 부르시며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사용하였던 흠없고 번쩍이는 은나팔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빛 찬란함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추석을 맞이하며 ◆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추석입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맑고 신선한 날들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삼일 동안 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못보던 친지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풍족하게 채워 주신 날들을 기억하는 여유가 좋습니다.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바이겠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거하며 주신 기회를 선용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추석에 해야 할 것

1. 감사와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추석에는 감사의 대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감사에서 마음의 감사로 우리들의 생각을 옮겨야겠습니다.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긴 하지만, 추석을 맞으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조상이 우리들의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겠습니다. 또한

다소라도 돈과 지위와 이해관계로 끌려다녔던 시간들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요 목상하십시오. 어느새 파랑게 물든 하늘이 맑아 줍니다. 들녘의 시원한 바람과 만물의 풍성함이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해맑은 가족들의 미소가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하셨습니다. 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께서 어루만져서서 이만큼 지내온 나날들로 인해 감사가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풍요에서 소외된 이들을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명절에는 많은 경우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출 23:12, 신 10:18). 그리고 본래 추석빔(추석에 입는 새옷)은 종들이나 어려운 자들에게도 해 입히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추석은 우리 스스로 그토록 한탄하는 가족이기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풍성함을 받은 대로 나눌 곳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지들 중에

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애통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추석의 기쁨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추석에 하지 말아야 할 것

1. 조상에 차례지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추석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면서 복을 빕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땅을 주장한다고 믿는 토지신에게, 먹줄을 주장한다고 믿는 조왕이신에게, 바닷신에게 제사하면서 풍요와 안전의 복을 빕니다. 부엌에는 올게심(풍요를 비는 일종의 부적)이 걸립니다.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귀신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러한 마음가짐은 성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는 ‘무지함’에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처세’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다

시금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다만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지면 족할 것입니다.

2. 사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절에는 마음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풀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시적이 됩니다. 진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과시적인 마음가짐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물질의 사치, 말의 사치, 오락의 사치가 넘치게 됩니다. 풀어진 마음으로 도박이나 과도한 열락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친지들은 마음이 위축되어 슬픔만 안은 채 추석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서러운 맘을 가진 채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지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명절이 되면 모이는 것이 좋아하지만 모인 다음에는 다투고 헤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된 사랑과 격려, 그리고 겸손한 말과 태도로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수사랑이 가득한 향기로운 추석의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시는 분들은 부디 차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집실 제공)

※ 소년원에서 온 편지 ※

지난 8월 4-8일 우리 교회 교정전도회 주관으로 신촌중학교(춘천소년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 중 두 통을 간추려 실는다. (편집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촌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때 목사님께서 신촌중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러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오신 뒤로부터 이곳 학생들은 밝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이곳 신촌중학교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밝은 마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일만 하며 지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까지 재미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재미있게 해 주셔서인지 아무튼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재미가 있었습다.

목사님과 함께 오신 많은 선생님들과 모두 아쉽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사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길 바라고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목사님께 또다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는 정말 좋았고 모든 일이 잘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잊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였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을 들으며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목사님께서 이곳에 안와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곳에 있으면서 나가는 날까지 목사님의 말씀처럼 일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지내고,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힘쓰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고 나가서 한번 찾아 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고 조문선 자매를 추모하며 ○

우리에게 슬픈 기쁨을 남기고 간 이
그녀를 생각합니다

우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들 호주머니에 많은 것 담겨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 발걸음을 잡아두지 못합니다. 우리 본향을 향해 쉬임없이 걷습니다. 본향에 다다르기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무작정 빨리 걸을 길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께서 씨를 뿌리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씨를 뿌립니다. 고난 중에도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었다고 말해 줍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



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을 전하리’.

한 자매가 우리를 곁을 떠났습니다. 조문선. 그녀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다녔습니다. 가브리엘찬양대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월 6일 0시에 발생한 801편 광 추락 사고 때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선이가 월급받아 꼬박 저축한 것인데, 선교헌금으로 바칩니다”. 한 집에서 그 몸은 부서졌지만, 주님의 품에

안긴 그녀와 그 가족이 우리에게 나타낸 슬픔을 삼킨 사랑이 세계에 뿌려질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타는 슬픔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그녀와 그 가족을 생각합니다.

파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뛰던 그때, 언니를 만났었지
힘겨운 여정을 벗고 합격의 기쁨으로 첫 출근하던 그때,
이제 불과 몇 개월인데 언니는 그토록 빨리
저 하늘 영원한 곳에 날개를 펼치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언니 없는 빈 자리는 너무나 큰 빈 공간.
언니가 그렇게 가벼운 날
난 눈처럼 하얗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난 언니를 보았어.
그것이 현실이기를 얼마나 애애했던지...

이제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
언니의 사물함을 하염없이 들여다 보노라면

언니의 아득한 목소리가 게서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언니
여기를 봐.

언니를 기억하고 모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언니가 남아 있어.
언니가 있는 곳에 내가 갈 그때까지 언니는 나에게 늘 있을거야.

나와 우리들의 사랑을 언니에게 계속 전할게.

언니를 사랑하는 미현이가

취재수첩

중등/부 교사 특강

지난 9월 7일 주일 중등1부에서는 '효과적인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교사 특강 시간을 마련했다.

이 특강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이때 상담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받아들이야 하며 이후 정상적인 심리상태일 때 권면이나 설교로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으로 전형준 목사가 강의를 했다. 이 시간이 에민해져가는 중등1부 학생들을 상담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길잡이가 될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는 일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우리 모두 수화를 배웁시다

에바다부에서는 농아인 선교를 위하여 사랑의 수화교실을 오는 9월 21일 개강하여 약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한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좌에 참석하여 장애인 복음화에 동참한다면 또다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과정:

- 주일반: 오후 3시 - 4시 30분
- 수요일반: 오후 1시 - 2시 30분
- 교육 기간: 9월 21일~12월 21일
- 교육 장소: 교육관 109호
- 신청: 에바다부 교사실

5부예배 안내위원 모집

에배위원회에서는 5부예배시에 봉사할 안내위원을 모집한다. 봉사 시간은 매주일 오후 2시 20분부터 4시까지로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본당 예배위원회실로 문의하면 된다.

교도소에

성경, 찬송가를 보냅니다

교정전도회에서는 교도소 전도를 위하여 성경과 찬송가를 각 교도소에 기증하기로 하고 성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재소자들이 신앙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되어 출감 후에도 새

동서울노회 제52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목사고시청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② 장로고시 청원 ③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④ 전도사 고시 청원
- ⑤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⑥ 신학 계속 추천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1997년 9월 19일(금)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과(☎ 552-8200 교환 402, 563-2339)

충현게시판

새벽기도회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교회 새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의 찬송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정결해질 때 주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 시간: 매일 새벽 4시 40분
- 장소: 본당

금요집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찬송과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충현의 온 가족이 대규모 찬양대가 됩니다. 찬양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목사·장로중창단, 청년·대학생들의 찬양, 호산나찬양대 등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다양한 모임과 개인들의 연주가 주님께 올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펼쳐집니다. 친근히 대화하고 기도합니다. 이 은총의 잔치에 충현의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본당

젊은이를 위한 5부예배

충현의 젊은이들에게 온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매주일 오후 3시에 드리는 5부예배를 통하여 청년·대학생들이 말씀으로 연합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잠재력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충현의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교회에 힘을 불어넣는 통로로, 선교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 시간: 매주일 오후 3시
- 장소: 본당

이곳에서는

▶ 요즘 교회학교 각 부서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청년2부에서는 오늘 암송대회를 실시하며 소년부, 새가족부에서도 다음 주일(21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라면 송이꽃보다 더 단 말씀의 진수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 영아부에서는 오는 21일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어린 영혼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기대된다.

▶ 에바다부에서는 오는 9월 21일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 많은 성도들이 군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적 헌신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군전도회에서는 12사단연대교회와 전국충현교회를 지원했다. 특히 11교구 김순제 권사가 103여단교회 건축을 위해 특별헌금을 하였다.

▶ 선교연구원 교육 장소가 베다니 홀에서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로 변경되었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1997년 9월 14일: 9교구
1997년 9월 21일: 10교구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다니 홀에서 있습니다.

21세기 교회와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날 학생들을 위한 이 기도회에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찬양대 여름수련회를 다녀와서 ☜

구원의 은총 베푸신 전능자를 찬양

장순양

(임마누엘찬양대)

'8월 14일 8시 14분에 출발합니다'라는 광고를 생각하며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와 함께 교회로 향했다. 교회 앞뜰에는 이미 온 대원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먼저 온 대원들은 늦는 대원들을 뒤로 하고 먼저 떠나기로 했다. 예정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청수연수원에 도착했다.

개회예배때 김재철 목사의 시편 66편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신앙고백과 함께 삶 자체가 제사가 되어 드려야 한다고 하셨다. 짐을 정리한 후 지휘자 선생님의 리듬론과 음정론의 강의가 있었다. 리듬패턴을 따라 치고 장음정, 단음정으로 구별하여 부르기 등의 실습을 했다. 다음날은 강임구 집사님의 호흡과 발성 강의를 들었다. 복식호흡에 대한 강의는 들었지만 바른 자세에서 숨을 아랫배부터 넣고 엉덩이로 숨을 쉬듯이 약간 긴장을 하면서 하라는 말씀이 귀에 꼭 들어왔다. 갑자기 배에 힘이 받쳐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발성 연습도 했다.

시간시간 시작할 때마다 워크북의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였다. 그 중 나의 마음에 울려 퍼진 찬양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가사가 이루어진 찬양이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기뻐하실까? 아!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

요. 이러한 찬양의 시간은 찬양집회로 이어지고 우리의 찬양으로 신앙고백은 계속되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 캠프에서 누구나 기다리는 순서가 있다. 미래의 임마누엘찬양대까지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이다. 올해는 뮤지컬이었는데 그 열기는 대단했다. 여러고성이 무너질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의 이야기를 강조한 그레도조가 금상을 차지했다.

버스로 아슬아슬하게 간 만큼이나 높고 깊은 장소라서 그런지 같은 하늘이라도 유난히 파랗고 나무들도 아주 진한 녹색으로 그 경치가 눈이 부실 정도였다. '참 아름다워라'를 불렀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자연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아니 자연에 동화된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다.

수련회 후에는 한아름 안기는 선물 이 있다. 그것은 대원들 각자의 이름이 쓰여 있는 커다란 종이에 이름의 주인 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커다란 종이를 수련회 후에 걸어서 예쁘게 잘라 본인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 종이 아니라 사랑이며 관심이다.

토요일 찬양연습시간부터 주일까지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대장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다. 아니 나 말고 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다니.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을 찾아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시는 그분, 잠잠히 사랑하시며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찬양드리려고 오는 모두가 동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은 배가되어 우리 안에 철철 넘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시길 기뻐하시는 그분께 내 삶을 찬양의 산제사로 드린다. 하나님 사랑해요.